



부림제지공업(주)

# 환경산업접근 사회기업으로 발돋움

## 재활용품도 경쟁력 필요



- 1984. 9. 20 부림제지공업(주) 설립
- 1985. 6. 국내 최초로 100% 우유팩 재활용
- 1991. 9. 10 부림제지공업(주) 상호변경
- 1992. 3. 재활용 화장지부문 환경마크 사용승인
- 1993. 7. 28 세계환경의 날 대통령상 수상
- 1994. 9. 30 국내 최초 전철표 재생 화장지 특허출원
- 1994. 10. 30. 국내 최초 화장지부문 품질보증 그린Q마크 획득

### 폐지는 무한 잠재력을 가진 원료

1년간 쓰여지는 종이팩이 약 60억개이고 이 종이팩을 수거하여 재활용하면 50m 두루마리 화장지가 1억5만개 생산되어진다.

최근 10년간 외화절감과 환경정화에 일익을 담당해온 부림제지는 우유팩과 지하철표를 재활용하여 '코주부'라는 고유 상표로 시중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화장지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곳에서 생산된 재활용 화장지는 정부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군부대, 종교단체에서 대대적인 호평을 받으며 사용되고 있다.

“필프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 나

라가 화장지까지 고급펄프로 만들어져 쓴다면 국가경제의 주름살은 더 깊어만 갈 것입니다. 선진국도 재생화장지를 쓰는 것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91년 브라질 리우의 세계 환경보전 선언에 즈음하여 대통령상과 94년 12월 MBC와 한일은행이 주관한 좋은 한국인상 대상(환경부문)을 받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다는 홍봉희 상무는 아직까지도 '재생'하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안타까워 했다.

우유팩이 버려지면 30년동안 썩지 않는 물질이지만 재활용하면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고급화장지가 되어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수입원료 대체 효과 및 막대한 외화절감으로 일거 삼득의 효과가 있다.

우유팩의 경우 90년 한해동안 국내 사용량은 60억개나 되지만 회수된 것은 겨우 8%인 4억8천만개 뿐이다.

부림제지는 5억원의 시설투자를 통해 지난해 개발한 전철표 재활용 화장지도 생산하고 있다. 전철표는 우유팩과는 달리 마그네티케이프가 붙어 있어 이를 제거한 후 재활용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철표 마그네티케이프 제거는 특허출원까지 낸 기술로 자체 개발한 것이다.

하루 평균 4백만명이 이용하는 수



▲ '제3회 국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화전' (94년 5월 KOEX)에서 부림제지 운명식 사장이 손명순 여사에게 우유팩으로 재활용화된 화장지를 설명하고 있다.



◀ 재활용되기 위해 수거된 우유팩



◀ 완제품인 코주부화장지

## 환경보호는 작은 것에서 시작

“인력부족으로 당장 모든 전철표를 수거해 운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거를 쉽게 하고 자원 재생업체에 대한 세계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면 업계 스스로도 경쟁력을 키우며 더욱 자원재활용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일반인들까지도 재활용장지를 선호하고 있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관공서 및 공공장소, 그리고 선구자적인 기업체 및 가정에서도 점차 재활용장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주부표 재활용장지의 특징은 우선 환경보호를 먼저 생각하는 상품입니다. 100% 국내 우유팩, 전철표 등 고급펄프만 사용한 제품을 재생하는데 비위생적인 표백제나 향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100°C에서 2시간 이상 살균처리해 질기고, 부드럽고 먼지가 나지 않는 상품이며 시중가격보다 20~30% 저렴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고 홍상무는 밝혔다.

연구진 및 사원 모두가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란 자세로 최선의 기술로 최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부림제지의 노정은 그리 평탄한 길만이 아니었다.

최고급 펄프를 수입해 만든 우유팩은 30년이나 썩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었지만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우유팩으로 환경오염이 가중됨은 물론 외화낭비도 심한 것을 인식, 우유팩 처리에 나섰으나 많은 어려움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에도 부림제지가 환경보존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 노력으로 재활용이란 사업을 활성화

	제1공장	제2공장
위치	춘천시소재 가평군 청평소재	
건평	1,500평	270평
건평	400평	150평
보유기계	초지기:2대 및 부대시설 권취기:1대 인터홀더:1대 포켓용 기계:1대	권취기:2대
인원	50명	15명

도관내의 지하철표 등 각종 티켓이 버려지는 것이 연간 전국의 400~500백톤 가량이다. 부림제지에서는 이것을 고급 화장지로 재생산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절약에 또한번 이바지하게 되었다.

서울지하철에서만 1년에 약 5백톤 가량의 전철표가 나오는데 이것

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만 따져도 적지 않지만 재활용해 자원화 한다면 환경보존 효과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손을 댔다고 한다.

앞으로 생겨나는 모든 전철과 국철까지 감안하면 연간 1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생겨 날 것이므로 더욱 바빠지리라 본다.

시켰다. 결과물로 85년 우유팩재생 기술을 개발하고 부림제지공업(주)을 설립했다. 당시로는 획기적인 기술개발이었고 각종 환경단체로부터 찬사가 쏟아졌다. 각급 학교로부터 수거된 우유팩을 잘게 썰어 섭씨 100°C에 두시간을 삶아 내는 과정에서 완전 살균을 하고 분해된 재생 펄프는 최종적으로 대형 롤러에 의해 화장지로 다시 태어난다.

당시의 기술로 제지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대량으로 우유를 소비하는 학교 등을 돌아 다니며 팩수거에 나섰으나 체계적인 수거가 되지 못했다. 결국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막대한 설비투자의 부담이 가중돼 부도를 내고 말았다.

부도가 난후 그대로 주저 앉을 수 없다는 오기가 윤명식 사장의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 올랐다. 또한 부도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종업원들의 가슴속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일어났다.

“그때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도라는 것을 당하게되니 아찔하더군요. 그러나 부도가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기여부는 결국 기업인의 정신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념을 갖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지만 끈끈하다면 재기하는 것은 시간문제지요”라며 긴장된 목소리로 윤명식 사장은 말했다.

### 체계적 환경교육 절실

환경마크는 온 우주의 생명체가 생명의 근원인 깨끗한 공기, 물, 흙 등 자연에 둘러싸여 조화를 이루고

이루며 번영하고 있음을 뜻한다. 초창기에는 디자인 등을 중시했으나 환경문제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실과 무공해 녹색소비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 환경마크 획득인준에 대해 홍 상무는 “환경마크 획득업체는 많지만 그 업체들을 보면 거의 수입폐지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환경마크는 국내마크기 때문에 국내 순수 100% 폐지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업체를 선정 심사하여 인증해 주어야 합니다”라며 강조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폐지가 곧 돈’으로 인식돼 폐지수거업체가 날로 증가하여 마구잡이 수거라는 폐단을 낳아 재활용업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각 가정의 분리수거체계 수준은 곧 환경산업을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우유팩이 남아돌아 수거라든가 재활용면에서 힘이 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갖 폐지가 섞여 들어와 그것을 하나하나 분리하는데 드는 시간과 인력으로 인해, 그리고 폐지수거업체들의 무분별한 수거와 과당경쟁으로 인해 올 상반기 매출액은 작년 수준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나마 종교단체, 학교에서 도와주셔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마운 것은 우유팩을 물로 세척해 펼쳐서 보내줄 때”라고 말하는 홍 상무는 후손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교육과 매체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나라 업계의 매출액 중 물류비가 7~8%가 듭니다. 큰 액수지요. 반면 일본은 4%에 달하

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로 인한 물류비 낭비는 심각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재생품도 경쟁력 갖춰야

부림제지는 91년의 부도이후 재기해 이제 춘천공장 외에 청평에 공장을 마련했다. 서울지역 판매분량은 청평공장에서 생산하며 올해 매출을 30억원으로 잡고 환경보존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35억원도 어렵지 않다고 한다.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으로부터 Q마크를 획득했고 환경처로부터는 환경마크를 받아 화장지와 티슈를 생산하는 부림제지는 언제나 바른 길을 걷고 집념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 상무는 “환경보존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건전한 상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품판매는 어디까지나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품질이 뒤떨어지는데도 환경보존이라는 구호에 의존해 물건을 사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조금 만이라도 재활용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사용을 한다면 자원재활용 사업은 활기를 띠고 환경보존사업은 놀랄 만큼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쓰레기재활용에 대한 의무규정을 만들고 자원재생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환경보존은 우리 세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자원재활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라며 말을 맺었다. ☐

## 자원재활용은 환경보존 침병 국민들의 분리수거생활 보편화되야

### 재활용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자연환경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빌려 쓰는 것인 만큼 깨끗하게 사용하고 보존하여 다시 후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되어 미약하나마 폐자원 활용으로 환경보전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인 폐우유팩을 100% 사용하여 재생화장지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자신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한편으로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훈이 인화단결, 창의노력, 정신건강'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경영방침이 있다면...**

회사는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모든 재산은 사회를 위해 환원되어야 하고 경영자도 때가 되면 바뀌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화하는 시대를 앞서

### 폐지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사업은 이윤면에서 그리 높지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성만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 벌써 그만뒀을 것입니다. 누가 만성적자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쓰레기재생산업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실 재활용업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업종입니다. 시설자금도 많이 투자되는 반면 부가가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원료인 우유팩의 수거도 어렵거나 재생지란 편견 때문에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재생산업은 누군가 해야 되겠기에 아직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활용업에 매진할 것입니다.

### 100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면...

지난 91년, 20여원의 손실을 입고 '부도'라는 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때 채권자들을 찾아가 재기할 수 있도록 참고 도와줄 것을 호소하면서 주머니에 유서를 넣고 다녔습니다. 좌절로 죽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이 사업이 아니면 죽는다는 집념에서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 집에 보내고 제 소유인 모든 재산을 공장을 다시 돌리는데 털어 넣었습니다.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을 내보이고 하니까 종업원들도 믿고 잘 따라 주었습니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부림제지 나름대로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생각입니다. 어려울 때 믿고 따라준 종업원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환경보존은 단순한 캠페인의 운동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류의 생존 자체가 환경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계몽운동이나 홍보활동이 아닌 수동적 자세보다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무담보의 지원금확대와 원활한 쓰레기수거를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할 때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보편화된 분리수거 생활이겠지요. 생활자체가 분리수거로 몸에 배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작은 정성이 우리의 지구,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건강을 지키거든요.

모르겠어요, 국민들 스스로 얼마나 자연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

변준섭 기자